



###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 사랑하올 어머니 Pr. 1,000차 주회합 가져

【메릴랜드】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주임 김성래 하상 바오로 신부)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소속 사랑하올 어머니 Pr.(단장 성종성 카타리나) 1,000차 주회합을 지난 5월 8일 가졌다.(사진)

한국에서의 레지오 활동을 그리워하던 6명의 형제자매가 2005년 10월 22일 첫 회합을 가졌고, 20여 년 동안 많은 형제자매가 이동하는 가운데 초대 단장과 한 형제를 50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움도 있었다.

현재는 6명의 행동단원과 2명의 예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단원인 성종성 카타리나, 양혜경 소화대례사 2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호도 반납의 위기에 있는 다른 Pr.에 이효정 크리스티나 전 단장을 포함해 3명의 자매의 영광스러운 전출도 있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모님의 전구

로 이루어진 최고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5명의 협조단원들의 기도 반석 위에 단원들은 레지오 목적을 중시 여기며 개인 성화에 힘쓰고 있고 성모 마리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전투 중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Zoom 온라인을 통해 회합을 이어 왔고, 코비드 이후 턱없이 부족해진 군사를 모으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어머님에 대한 성실한 효, 단원간의 이해와 노력, 사랑이 큰 무기인 사랑하올 어머니 Pr.단원들은 앞으로 영예로운 분가로 성모님의 군단을 확장시킬 것을 다짐했다.

기사/사진 제공: 성종성 카타리나

## 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닌 신앙공동체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일일피정, 신앙안에서 이주민으로서 소명성찰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가 개최한 일일피정 참가자들이 도윤호 신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닌 신앙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한 도 신부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설명했다.

【뉴욕】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NYKCLC, 의장 박은희 크리스티나)는 뉴저지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로올라 피정의 집에서 일일 피정을 지난 5월 4일 개최했다. 이날 피정에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72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도윤호 세례자 요한 신부(한국 예수회)의 강의와 소그룹 나눔, 미사 및 서약식이 진행되었다.

도윤호 신부는 수련기와 보스턴 유학 시절, 캄보디아 공동체와 함께한 경험을 나누며 '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닌 신앙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주 여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설명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성가정 안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셨기에, 이주민의 고통과 정체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신다고 강조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실향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의 여정 속에서 도전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순례하는 백성과 늘 함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그

롭 나눔에서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돌아보며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민 1세대의 신앙과 헌신에 감사하며, 새롭게 형성될 공동체와 이주민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성찰했다.

오후 강연에서 도 신부는 이주 체험의 신학적 의미를 조명하며, 이주가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본래 '이동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도 'God the Migrant'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인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자이며, 교회의 '이주성'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이고 이주자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 하였다.

이어 그는 그리스도교는 "기억하는 종교"이며, 불편함과 양심을 거스르는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흔들고 깨우는 신앙적 개입(interrupt)이 종교의 본질임을 설명했다. 기억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신앙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며, 십자가는 그러한 '위험한 기억'을 일깨우는 상징임을 나눴다. 나아가 이러한 이주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형제애와 하나님의 정의

와 사랑을 실천하는 보편적 소명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미사 강론에서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수도 여정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 사명을 실천하며 파견되어 살아가도록 초대했다. 미사 중에는 2명의 종신서약, 8명의 유기사약, 27명의 유기사약 갱신이 이루어졌으며, 박은희 크리스티나 전임 의장의 이임식과 허정 아나스타시아 신임 의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유기사약과 종신서약을 준비한 회원들은 공동체 앞에서 CLC의 일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모든 회원은 주님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CLC) 회원들은 매년 일일피정을 통해 양성 단계에 따라 유기사약, 서약 갱신, 종신서약을 이어간다.

한편 NYKCLC는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2박 3일), 10월 1일부터 5일까지(4박 5일) 로올라 피정의 집에서 2025년 이나시오 영성 침묵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홍경자 미카엘라 이상현 스테파노



###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본당 청소년 음악회

【텍사스】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주임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성음악분과 주관으로 본당 청소년 음악회(뮤직디렉터: 유지연 마리아프란체스카)가 지난 5월 10일 열렸다. (사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 38명과 3명의 플룻 연주자들의 찬조 출연, 총 41명이 참가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오보, 트럼펫, 드럼, 성악, 그리고 임마누엘 어린이 합창단의 짧은 부활 성극과 합창을 펼쳤다.

두시간의 음악회 후 참가자 전원

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학부모가 준비한 리셉션이 있었고, 성음악분과와 홍보분과의 많은 봉사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홍보분과

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학부모가 준비한 리셉션이 있었고, 성음악분과와 홍보분과의 많은 봉사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홍보분과

cpbc 미주가톨릭평화신문  
The Peace Times Weekly, Inc.

## 시카고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OUR LADY OF KOREAN MARTYRS

###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s

#### 주일 미사 |

교중미사 11:00am  
하질기(7월 - 8월) 9:00am

#### 평일 미사 |

대림시기 - 10:00am (회/수요일), 7:00pm (목요일)  
시순시기 - 10:00am (회/목요일) \* 미사 후 <십자가의 길>

본당사무실 | (815) 524-4502 팩스 | 630-250-2502  
이메일 | olkmc7121@gmail.com  
주소 | 224 Bruce Rd Lockport, IL 60441

